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이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연구

오 기 성(서울대학교)

◁ 목 차 ▷

- I. 서 론
- II. 남북한 문화의 다름
- III.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의 모습
- IV. 긍정적 다름의 통일교육적 함의
- V. 결 론

I. 서 론

남북의 평화와 화해협력, 그리고 통일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남북한 문화가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이러한 견해는 남북한이 분단 반세기 동안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의 이질성과 전통적 측면에서의 동질성을 보여준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¹⁾는 당위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남북한 문화가 전통적인 측면에서 동질성이 있고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 이질성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주로 70년대에 남북한 냉전체제하에서 정립된 남북한 문화에 대한 시각에 기초한다. 그러나 남북한 문화에 있어 전통적 측면에서만 동질성이 있는 것도 아니요,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 이

1) 통일부, 『2001 통일교육지침서』(서울: 통일부, 2001), p. 4.

질성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북의 이질적 측면, 즉 '다름'일지라도 양자의 화해협력과 통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 다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선 그 동안 논의되어온 남북한 문화의 전통적 측면에서의 동질성과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의 이질성, 통합에 있어 이질성의 부정적 기능이라는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화해협력과 통합에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남북한문화의 '긍정적 다름'의 모습을 분석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같음, 부정적 같음, 부정적 다름의 논의는 제외된다.

본 논문은 남북한문화의 분석을 위해 톰슨의 문화에 대한 구조적 개념을 토대로 김경동의 인지적 경험문화, 심미적 표출과 감상의 문화, 평가적 규범의 문화로의 분류를 원용하였다.²⁾ 이를 남북한 문화의 하위구조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예시될 수 있다.

인지적 경험문화	상징적 차원	이념과 문화관, 언어, 종교
	외현적 차원	의식주생활문화와 산업화에 관련되는 물질문화
심미적 문화	상징적 차원	문학 및 예술의 주요 가치지향
	외현적 차원	문학, 미술 및 공연예술의 형태, 문화향수 실태
규범문화	상징적 차원	공식적 가치와 관련된 도덕규범과 이상적 인간상
	외현적 차원	비공식적 가치를 지향하는 일상적 태도

이러한 문화의 분석 틀은 문화를 예술로 치환하거나 등치시키는 오류를 벗어나게 해 준다. 또한 문화가 정치이념적인 영역과 완전히 분리된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 반대로 정치이념을 포함하는 인지적

2) J. B. Tompson, *Ideology and Modern Culture* (Cambridge: Polity Press, 1990), p. 148; Jeffrey C. Alexander and Philip Smith, "The Discovery of American Civil Society : A New Proposal for Cultural Studies", *Theory and Agency*, Vol.22, No.2, (1993), p. 156; J. V. Baldridge, *Sociology* (M.Y.: Wiley, 1975), p. 81;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서울: 박영사, 1997), pp. 41~47 참조.

경험문화의 상징적 차원이 심미적 및 규범문화에 대해 기계론적·단선적으로 영향을 주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틀을 남북한 문화의 분석에 적용할 경우 문화를 단순히 예술로 치환하는 것을 넘어 예술은 심미적 문화로서 한 영역을 차지하고, 이외에 의식주 생활문화, 이념, 규범 등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징적 및 외현적 차원으로서의 구분은 특히 북한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지향에 기초하여 문화가 발현되는 측면과 아울러 이념이나 가치지향에 기초한다고 해도 그 투영 정도가 약한 부분이 있다는 점, 동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찰할 때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의 분석 틀을 토대로 『2001 통일교육기본지침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남북한 문화에 대한 논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이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남북한 문화의 다름

1. 다름을 보는 시각

현재 국내에서는 남북한의 문화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두 갈래의 인식이 쟁점화되어 왔다.³⁾ 그 하나는 민족내의 이질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견해이다. 이 같은 인식은 분단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산주의라는 이질적 사상체계가 동족간에 위화감과 이질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동일 민족으로서의 정체의식이 사상이나 이념 등으로 인해 쉽게 변하지 않으며, 수 천년 동안 이어온 민족적 동일성이 단기간 내에 변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전자의 견해는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가 심각하다는 견해의 근거를 북한이 사회주의 정치체계를 건설한 점에서 찾고 있다. 즉 남북한 문화의 극심

3) 박상천 외,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pp. 13~15 참조.

한 이질화, 다름의 초래는 전적으로 북한이 주도하였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굴절된 문화를 전개해 온 북한의 문화를 온전한 남한의 문화가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자의 견해는 5000여년의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속에서 형성된 문화와 비교해 볼 때 50여년이라는 단기간 동안의 분단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이질화는 그 동질성에 비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문화는 이질성보다 동질성이 강하며 따라서 동질성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더욱이 이질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통일에도 저해요인이 된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논리가 지닌 공통점은 5천년의 역사속에서 남북이 분단되어 50여년 동안 상이한 이념과 체제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일구어오는 동안 전통적인 규범이나 관습을 포함하는 문화 부분은 동질성(전통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 이질성이 문화를 포함하는 다른 여타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전제를 기초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게 절대적인 책임을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남북의 문화적 이질성, 즉 다름의 형성은 남과 북 사회의 공통적이고 동일한 모습이다. 그 변화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제도와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건 또는 근대화의 정도에 따른 결과이건, 사실상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만큼 자신도 달라졌다.⁴⁾ 즉 남과 북이 다름의 측정을 남한의 현대를 잣대로 삼는 까닭에 모든 다름은 북한의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다름의 상대성을 망각하거나 무시하여 북한의 상대적 다름을 반공논리로 절대화하게 된다면, 북한 사회의 다름은 실제의 두배로 환상적 인식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동시에 어떤 면에서 남한이 민족의 전통적 특수적 고유의 생활양식이나 풍습 가치관 등으로 포기한 측면이 많

4) 이영희, “남북한 정치사회상의 이질감과 극복,” 『남북한 이질감과 그 극복 전망』, 효성여대 현대사상연구소 주최 1993년 통일문제 교수 학술 세미나(1993. 9. 23), pp. 5~6; 이광규, 『새로운 민족관의 수립을 위하여』(서울: 서울대출판부, 1995), p. 141.

은 것을 볼 때, 북한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감각하는 거리보다도 더 먼 거리로 남한 사회가 변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현상학에서 논한 바와 같이, 생활세계에 있어 풍습, 관습, 그리고 전통적 행태들은 고도로 사회화한 구조의 정형화된 지식이며, 이것은 나와 이웃의 사적 지식을 초월한다. 이 지식은 고유의 역사를 지니며 사회적 유산의 일부가 된다. 개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든 사회제도가 마련된다. 제도는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의 복합체이며, 생활세계는 바로 이 복합체이기도 하다. 이 세계안에서 나는 다른 개인과 언어 그리고 기타 상징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나누는 바, 이것이 곧 문화이다. 일상어의 낱말과 어구는 사회적으로 유래하는 지식이 전파되는 정형화의 매체이다.⁵⁾ 따라서 생활세계는 '활동적인 것이며 사회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다.⁶⁾ 비록 그것들이 개념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생활세계의 이러한 특성은 실제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남북한 문화현상의 전개를 현상학의 생활세계 개념에 적용시켜 보면, 우선 우리는 분단 이전의 한민족의 생활세계와 분단 이후의 남북한간의 생활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분단 이전의 생활세계는 한민족이 개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제도를 형성했으며, 풍습, 관습 및 전통적 행태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문화의 하위구조가 동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분단 이후의 단절된 생활세계는 양측의 지향 이데올로기와 지배적 구성원들에 의해 서로 상이한 사회제도를 형성시켰고 이는 다름의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즉 체제상용성이 없는 인지적 경험문화의 상징적 차원에 의해 하위문화가 채색됨으로써 다름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인지적 경험문화의 상징적 차원이 각각의 하위 문화들에 대해 채색되는 정도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상징적 차원이 외현적 차원에 기계론적으로 영향을 주지만은 않는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전통적 동질성의 단서가 된다. 후자의 경우는 이념과 체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같음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따라서 인지적 경험문화의 상징

5) 차인석, 『사회인식론: 인식과 실천』(서울: 민음사, 1992), pp. 113~116 참조.

6) Hwa Yol Jung, *Rethinking Political Theory : Essay in Phenomenology and the Study of Politics* (Athens: Ohio Univ. Press, 1993), p. 7.

적 차원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긍정적 다름의 요소가 추출될 수 있다.

2. 다름의 실제⁷⁾

남한의 사회체제는 대체로 민주주의사회에 기초하는 다원주의체계로서 개인주의에 입각한 합리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비집단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이다. 이러한 다원주의를 기초로 남한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에의 접근기회를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증가시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문화지원정책이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 실질적인 문화활동은 개인이 담당하고 정부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남한에서 문화의 목표는 정책적 결정에 의하여 제시되기보다는 체제 자체의 자율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에 따라 남한의 문화는 국민의 공동체意識의 함양, 국민 정서의 순화를 통한 바람직한 가치관으로의 계도, 국민의 정서적 욕구의 충족, 순수예술론의 관점에서 예술 그 자체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⁸⁾

그러나 북한은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 그리고 이에 토대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론’과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이라는 이념적 토대를 통해 주체사상과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사회를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문화는 정치적 예속물로서 최고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이 표방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북한의 문화는 대체로 당규약이나 김정일의 교시에서 거의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메카니즘의 측면에서도 김정일의 문예정책을 실질적으로 관장,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와 내각의 문화성이 있다.

7) 남북한 문화의 같음과 다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오기성, “문화통합을 지향하는 통일교육 내용의 개선방안 연구”,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종합평가와 향후 발전과제』(서울: 통일원, 1998), pp. 37~45; 오기성, 『남북한문화통합론』(서울: 교육과학사, 1999), p. 221~278 참조.

8) 정홍익, “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 『문화예술논총』, 제5집(1993), pp. 53~55.

따라서 국가가 문화 예술에 개입하는 수준과 관련하여 남한에서도 문화 관광부가 문화 예술활동에 관여하고, 공연윤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지만, 북한에서는 정부와 당이 직접 문화 예술활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 사회와의 관련성에서도, 남한에서는 예술이 사회의 영향을 받고, 사회가 또한 예술에 영향을 주는 상호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에서는 예술이 사회에 종속되는 정도가 강하다. 또한 남한에서는 문화활동이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인식되지만 북한에서는 여가생활인 동시에 정치적 활동이 되고 있다.

1) 인지적 경험문화

우선 인지적 경험문화의 상징적 차원에서 볼 때, 남한은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영역에서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political selectivity)⁹⁾가 비교적 약하게 작용하고, 되도록 문화현상을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북한은 집단주의와 획일성을 특징으로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리고 조선민족 제일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토대 위에 수령과 노동당이 문화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를 선택하여 집행해 왔다. 여기에 강력한 정책기구를 필요로 한다. 남한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제도와 기구들이 북한에서는 중앙권력, 특히 1인 중앙집권의 경향을 지님으로써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양 체제의 다름은 언어에도 영향을 미친다. 언어의 경우 남북한의 언어관은 크게 다원주의적 사고와 일원적 사고, 또는 이성관에 바탕을

9)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는 김경동교수가 주창한 이론으로서, 어떤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힘의 배분원리에 따라서, 어떤 사회는 민주적 참여를 최대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여 변화의 우선 순위와 수단을 설정할 것이고, 또 다른 사회는 일인 또는 소수의 전제적 지도자에 의한 과두적 결정유형으로써 하게 될 것이다. 이 양극의 가운데는 갖가지 민주적인 조직원리로부터 권위주의적인 것에 이르는 유형들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김경동, 『한국사회 변동론』(서울: 나남, 1994), pp. 87~89.

둔 서구적 사고와 혁명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적 사고에서 이 질성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어휘분야, 특히 정치적 용어의 차이는 심하다. 이외에 남한에서는 산업화, 개방화와 함께 수많은 외래어가 유입되었고, 북한에서는 어휘에 이념이 내포되어 의미가 왜곡되기도 하였다.¹⁰⁾

2) 심미적 문화

인지적 경험문화의 다름은 심미적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징적 차원에서 남한의 문학예술은 다양성과 상대적 자율성 보장을 큰 장점으로 한다. 그러므로 외현적 차원에서 남한의 문학예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현실변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서구의 새로운 사조를 수용하여 문학예술적 형식과 내용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도덕주의와 유태주의는 때로는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는 김정일의 주도로 상징적 차원이 이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김정일의 『영화예술론』(1973.4), 『연극예술론에 대하여』(1988.4), 『무용예술론』(1990.9), 『음악예술론』(1991. 7), 『건축예술론』(1991.10), 『미술론』(1991.10), 『주체문학론』(1992.5)이 상징적 차원의 경직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 차원을 기반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작가동맹이나 예술가동맹의 구성원들에 의해 구체적인 문학예술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북한의 심미적 문화는 문학예술의 다양성과 상대적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당정책, 문예정책과 문예이론, 문학예술작품이 서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창작방법에서 북한의 문학예술은 사상적 알맹이라는 ‘종자’를 작품의 생명력으로 보고 있다. 또한 창작방향에서도 ‘우리식’이라는 말 처럼 조선적인 것을 위주로 하고, 서양적인 것을 인민대중의 정서와 감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10) 상징적 차원과는 달리 의식주 생활문화와 같은 외현적 차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사회로의 수렴론 차원에서 볼 때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은 동질성을 보여준다; 임채욱, 『남북한 접촉과 문화변용』(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pp. 22~23.

수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창작방법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주체사실주의 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당성과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강조하고 있다.¹¹⁾

3) 규범문화

규범문화의 상징적 차원 또한 이질적 측면을 보여준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덕목 중에서 미래사회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경천애인과 홍익인간, 오상과 무위, 그리고 자연의 도덕적 명령을 따르는 순천절물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통적 덕목과 함께 앞으로 민주사회에서 요청되는 덕목으로 인권존중, 공정성, 준법정신과 책임감 그리고 정직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¹²⁾ 이러한 규범문화를 기반으로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갈 바람직한 한국인상으로서 주체적인 인간, 창조적 인간, 도덕적인 인간을 설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규범문화는 주로 집단주의 차원에서 공동체적 유대의식,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라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상부상조의 관습, 금욕주의와 인내의 정신, 배타주의로 요약된다. 또한 이러한 도덕적 덕목을 지닌 이상적 인간의 모델로서 수령의 전사이며 제자, 진짜배기 일군·충신·혁명가로 권장되고 있다. 이러한 규범문화와 이상적 인간상은 북한주민의 가치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¹³⁾

11) 문학예술의 주요 가치 지향을 나타내는 심미적 문화의 상징적 차원에서는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학 및 예술의 형태의 측면인 외현적 차원에서는 전적으로 이질성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기성, 『남북한문화통합론』(서울: 교육과학사, 1999), pp. 257~260 참조.

1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도서 도덕·윤리 연구개발위원회 편, 『고등학교 윤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pp. 158~159.

13) 이러한 북한이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과 도덕규범은 연구는 1993년부터 1997년 동안 4월에서 8월기간 중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그 언급회수를 측정하였다; 오기성, “북한의 규범문화연구”, 『국민윤리연구』, 제38호(1998.4), pp. 262~273 참조;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차원이 추구하는 공식적인 가치의 내면화 정도는 남북한 주민 개개인들에게 있어 일률적으로 측정되기 어렵다. 특히 여기에는 체제의 이념과 사회현실상에 불일치가 확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은 김학성, “통일문화 연구의 방향”, 민족통일연구원 편, 『통일문화연구(상)』(서울: 민족

Ⅲ.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의 모습

1. 인지적 경험문화

1) 언어

남북한은 상이한 인지적 경험문화를 기초로 전혀 다른 사회체제를 이룩해 왔다. 따라서 이념과 문화관, 종교부문에서 서로 다름을 형성해왔다. 언어부문에서도 이념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부분은 당연히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같은 어휘라고 해도 그 의미 내용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전자는 해당 사회의 어휘론적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의미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우선 남북한의 언어관의 차이는 크게 다원주의의 사고와 일원적 사고의 차이 내지는 이성관에 바탕을 둔 서구의 사고와 혁명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적 사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또한 언어변화와 관련하여 남한에서는 언어의 자연스런 변화를 원칙으로 하면서 언어와 사상을 하나로 보는 언어사상일체관의 관점에서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언어 도구관의 입장에 있으나, 언어가 사람들의 목적적 작용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변화되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를 통하여 인간의 사상, 의식을 개조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언어사상형성관의 관점에서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민간단체 주도하에 언어변화가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노동당 주관하에서 언어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언어가 정치에 종속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언어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휘정리 부문에서는 남한의 '국

통일연구원, 1994), pp. 248~250.

14) 남기심·김하수, "북한의 문화어", 고영근 편, 『북한의 말과 글』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91~94 참조.

15) 장경모, "남북한 언어 변동에 관한 연구", 『통일원 '93 북한통일연구 논문집(VII)』, 북한의 경제사회문화 분야 (1993), pp. 221~222.

어순화' 운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말다듬기'에 대한 논의와 그 사례이다.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은 어휘정리사업이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살리고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인식 아래 낡고 쓸데없는 말들은 빼버리고 고유어에 기초한 어휘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서 1966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말다듬기 원칙은 ① 쓸데없는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말로 고친다. ② 한자말과 외래어를 일정한 범위에 국한시켜 놓고 그 사용을 제한하여 굳어진 것만을 쓰도록 한다. ③ 인민들 속에서 널리 쓰이는 좋은 말을 적극 발굴하며, 선후를 가려 늘 쓰는 말부터 점진적으로 고쳐나간다. ④ 같은 뜻의 단어로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고유어를 쓴다. ⑤ 고유어의 어근에 따라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나간다. ⑥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지상토론을 전개한다. ⑦ 다듬은 말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통제하며 교육부분과 출판보도 부문에서 먼저 수용하여 확산시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¹⁶⁾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개발된 용어들에서 우리는 남북한 언어의 긍정적 다름을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나름대로 고유어를 활용하여 만들어낸 용어들은 남한이 외래어와 한자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보다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민족정체성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미풍'을 '가는바람', '도넛'을 '가락지빵', '브래지어'를 '가슴띠', '산책로'를 '거닐길', '여과기'를 '거르개', '횡단보도'를 '건늬길', '패도'를 '걸그림', '외풍'을 '걸바람', '아파트'를 '고층살림집', '쥬스'를 '과일단물', '투피스'를 '나넨옷'(동강숙), '원피스'를 '나리옷'(외동옷), '버라이어티쇼'를 '노래춤뭉음', '하이힐'을 '뒤축이 높은 구두', '음료수'를 '마실물', '가발'을 '덧머리', '계절풍'을 '철바람', '노크'를 '손기척', '팬티스타킹'을 '양말까지', '스포츠뉴스'를 '체육소식'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례들은 남한이 받아들여 사용해도 무방한 용어들이다.

16) 외래어 및 한자 사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박상훈·리근영·고신숙,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pp. 11~28 참조; 남북한 간의 어휘정리 원칙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남북한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 대한 연구는 이상섭, “국어교육의 개선방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국어의 순화와 교육』(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pp. 111~112.

2) 의생활문화

의식주생활문화는 각 문화의 필요성에 따라, 또는 각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컨대 남한의 의식주 문화가 근대화 에 따라 서양식으로 많이 변화된 측면이 많다면, 북한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근대화 상황 아래서 현대적 미감을 중요시하면서도 민족적인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

의생활문화의 경우 남한의 급속한 산업화과정은 의복의 소비행태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¹⁷⁾ 그리하여 한국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지나가는 유행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는 1970년대에 이어서 젊은이들의 문화가 사회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시기이다.¹⁸⁾ 우선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기 연예인의 복장이 젊은 층에 유행하였으며,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1980년대 신세대라는 새로운 젊은 층을 형성시켰고, 이들은 전례없는 속도와 힘으로 일반 복식을 패션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이제 의복은 단순한 실용적 차원을 넘어 미적 가치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자기 표현의 도구로 변화된다.

이에 비해 북한사회에서 의생활은 크게 보아 조선옷의 계승과 발전, 양복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발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 의복의 골간은 조선옷과 양복으로 분류된다. 특히 민족적 형식을 중요시하여 의생활에서 조선옷을 강조하는 방향을 추구했다고 평가된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전통의 현대화라는 정책방향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의 의류소비 실태는 식량사정보다는 덜하지만 아주 낮은 수준이다. 물론 북한주민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을 무상 또는 염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 스스로의 개인적 사회적 만족을 위한 의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²⁰⁾ 예컨대 여성복의 경우 북한은 직물 생산

17) 박찬부, “한국 현대 복식 문화 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 155.

18) 이은영, “의생활의 변화”, 이기영 외, 『광복 후 가정생활의 변천』(서울: 서울대출판부, 1996), pp. 125~126.

19) 주장현, 『북한의 우리식 문화』(서울: 당대, 2000), p. 223.

20) 이선재, “북한주민의 복식에 관한 고찰”, 『북한문화연구』, 제1집 (1993) 참조; 조선

량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의생활의 통제와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주의 건설 동원으로 작업복 착용시간이 많다. 유행과 디자인보다는 일반적으로 활동적인 옷차림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의복 선택의 여지는 있으나 대부분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은 일부 특수층에서만 이 의복선택에 대해 약간의 관심을 보일 뿐 대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조선옷, 특히 여성의 조선옷이다. 조선옷은 나름대로 전통을 현대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발전시킨 개량한복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조선옷은 색상면에서 단순했지만, 1980년대 들어오면서 색상에서 다양성을 띠게 되고 아울러 디자인이나 문양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남한 또한 1960년대부터 한복의 패션화 현상이 시작되면서 남녀를 대상으로 한 개량한복이 개발되었다. 개량한복은 아직 각자의 생활수준이나 혹은 담당하는 일의 성격에 맞게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지만 그 대중화가 진행중이며, 전통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여성 조선옷의 경우 현대복식 기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옷에 기울인 북한의 관심 속에 형성된 전통 한복의 문양, 디자인 등과 같은 축적된 노하우는 남북의 화해협력 형성 과정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 다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남한이 쌓아올린 현대복식의 노하우와 개량한복은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심미적 문화

1) 음악

음악의 경우, 북한 민족음악의 역사적 원칙은 민족전통음악을 복원하고

일보사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서울: 조선일보사, 1991 신년호 별책부록), 허문화의 증언, p. 117.

보존하되, 그것은 역사주체인 인민대중들의 현대적 미감을 중심적인 근거로 삼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민족음악이 현재적으로 발전시킨 민족음악은 풍부하게 발전하였지만, 바로 그 역사적 원칙 때문에 민족전통음악의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민족전통음악의 기반은 남한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지닌다. 바로 이것이 남한의 음악과 만나야 비로소 진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다름이다.

전통의 현대화라는 차원에서 볼 경우, 북한음악에 있어 새로운 악기를 개량하여 실제 음악계에 적용, 활용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다름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라 보여진다. 여기서 북한의 개량악기가 지니고 있는 특성은 전통음악 연주는 물론 서양음악도 연주할 수 있도록 한 점, 전통악기와는 달리 배음과 음량이 풍부해져 합주할 때 저음이 풍부하고 음량이 확대되고 독주악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독주때 전통악기보다 기교를 더 부릴 수 있게 된 점, 서양식 관현악단과 배합(전체 또는 부분배합)이 이루어져서 같이 편성(배합관협악)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그 특성이 있다.²¹⁾

2) 무 용

무용의 경우 남한은 30년대 이후 민족문화의 복원과 회복, 활성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민족 고유의 무용들을 보존, 계승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순수 창작무용에 있어서도 발레무용,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다양 각색의 무용들이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무용은 순수한 민족무용을 개조하여 집단무용으로 획일화시켰으며 예술적인 무용도 우리 춤과는 달리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서양의 발레처럼 기본동작을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하고있다.²²⁾

또한 남한의 무용은 민속춤의 경우 고유한 모습과 향토적 특성을 살려

21) 예컨대 개량단소나 옥류금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노동은, 『노동은의 음악상자』(서울: 웅진출판사, 1996), pp. 230~231; 전영태, “민족적 대서사시 창출을 위한 준비작업”, 『문학사상』(1992. 4), pp. 315~316; 한국예술연구소,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구성안 연구』(1995), pp. 69~71.

22) 이병욱, “북한무용의 이념과 실제”, 『북한연구』, 제4권 2호(1998, 여름), pp.102~103.

가면서 계승시키고 있다. 예술무용의 경우 서양무용인 발레와 현대무용의 기본을 바탕으로 창작을 하는 무용과 전통적인 각종 무용을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창작하는 다양각색의 무용작품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남한의 춤과는 대조적으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조선춤의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혁명과업에 맞도록 가공하여 획일적인 민족무용으로 전형화시켰다.²³⁾

따라서 남한무용과 북한무용을 놓고 볼 때 예술 철학적인 면에서는 한국무용이 개개인의 창작성을 존중하는 자유로운 예술로서 예술자체에만 그 가치를 두고 있는데 비해, 북한 무용은 예술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무용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이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무용에서 주목되는 점은 첫째로, 민속무용인 경우 춤사위가 기계적이고 각이 많은 춤이기는 하지만 근원적으로 기후풍토나 북한사람들의 고려적 기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에 있어서 북부지역의 향토춤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둘째로, 공연형식에서 보여 준 무대장치라든가 조형 등 무대공학적인 기술은 우리들이 수용해야 할 것도 있고 전해주어야 할 것도 있다고 본다. 셋째로, 북한의 무용이 민족적 특성을 상당히 강조하여 조선춤의 특징을 나름대로의 시각에 입각하여 정선된 동작과 감각을 살려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오히려 오늘날 우리 남한에서는 새로운 창작예술, 자유예술의 구현, 외래예술의 무비판적 수용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적 색채와 전통성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는 점에서는 우리도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²⁴⁾ 넷째로, 1987년 북한은 새로운 '자모결합식 무용표기법'을 완성하여 발표했다. '자모결합식 무용표기법'에서는 무용작품의 양상과 정서감정, 그리고 소도구의 이름이나 생활적인 동작 같은 것을 글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²⁵⁾ 무

23) 이러한 경향은 주로 무용창작의 기본방향에서 사상적 알맹이로서 종자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볼 수 있다; 김정일, 『무용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8~51 참조.

24) 이병욱, “북한무용의 이념과 실제”, 『북한연구』, 제4권 2호 (1993, 여름), p. 97.

25) 정병호 외, 북한의 공연예술Ⅱ(서울: 고려원, 1991), pp. 91~145; 이현경·최대석, “남북한 문화정책 및 교류현황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상)』(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395

용표기의 기호학적 발상인 무용표기법이 육체의 언어인 춤동작을 얼마 만큼 정확히 표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무용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연극

연극의 경우, 역사적으로 근대 이후 남한의 연극은 정치사 및 정신사와 궤적을 같이 해왔다. 광복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일제 잔재 청산, 봉건 잔재 청산, 분단문제(좌우익 사상의 대립),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분단문제와 더불어 전쟁, 이데올로기, 독재권력의 인권침해가 극작가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또 1980년대 중반부터는 '5공정권이 빛은 각종 정치사회학과 환경문제, 붕괴된 도덕성',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산업사회에서의 윤리의 피폐성이 새롭게 쟁점화되고 있다.²⁶⁾

반면 북한은 공연예술 분야로서 연극과 우리에게는 낯설다고 볼 수 있는 가극이라는 분야를 두고 발전시켜왔다. 우선 가극부터 살펴보면, 북한에 있어 혁명가극이란 김일성이 30년대 항일무장 투쟁시기에 직접 각본을 썼다는 연극을 60년대 말부터 김정일의 지도로 다시 가극으로 각색된 작품을 말한다.²⁷⁾ 북한에는 이 혁명가극 외에 혁명연극, 혁명가요 등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김일성이 지난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창작했다는 작품들이다.

남한의 경우, 열린 사회만큼이나 희곡이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다양성이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어느 한 형태도 확고하게 정립시킨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마당극이 1970~80년대에 풍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희곡형태로 정립되지 못했고, 뮤지컬은 오늘날 무대를 점유하다시피 하지만 그런 희곡을 제대로 쓰는 작가 한사람 없는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26) 이의 한국연극의 흐름에 대한 논의는 김웅태, 『연극이란 무엇인가』(서울: 현대미술사, 1997), p. 185; 이미원, 『포스트모던시대와 한국연극』(서울: 현대미술사, 1996), pp. 36~37; 유종호 외, 『한국현대문학50년』(서울: 민음사, 1997), p. 224, 235 참조.

27) 한국비평문학회편, 『북한 가극, 연극 40년』(서울: 신원문화사, 1990), pp. 56~58 참조.

북한 희곡은 이와는 별개의 것이다. 북한연극에 대한 강령적 문헌은 김정일의 논문인 “연극예술에 대하여”이다. 이 논문은 북한 연극에 있어 지침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연극혁명의 필요성, 극문학론, 연극 무대형상론으로 구분하여 연극예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²⁸⁾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연극무대형상 부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흐름식 입체무대 미술론이다.

흐름식 입체무대미술은 장면을 중단없이 전환시킴으로써 관객의 감정흐름을 단절없이 지속시키며,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²⁹⁾ 아울러 북한의 공연장들은 우리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무대의 깊이가 매우 크다. 이러한 독창성은 무대장치나 공연에서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연극의 경우 남북은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남한의 다양한 장르의 연극 발전과 북한의 공연장기술, 흐름식 입체무대예술은 한국 연극의 보편성 속에서의 독특성 확립을 위해 서로 교류,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4) 미술

미술의 경우, 남한 미술은 일제식민지 치하에서는 일본을 통해 서구미술을 강제로 수용했고, 6·25 이후에는 대략 10년 주기로 신속하게 서구미술을 수용해 왔다. 1910년대부터 1940년대에 일본을 통해서 이식된 미술은 서구양식인 ‘리얼리즘’이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도입된 서구적인 미술양식은 이러한 한국의 전통미술과는 양식과 이념에 있어서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³⁰⁾ 또한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기에 도입된 ‘추상형식’

28)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8.4.20),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9), p. 103.

29) 이강렬, “북한연극 50년, 회고와 전망”, 『북한문화연구』, 제3집 (1995), p. 57; 흐름식 입체무대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은 성황당이다; 이춘길 외, 김정일의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pp. 54~55; 현재원, “북한 혁명가극에 나타난 가요형식과 극적효과”, 『북한문화연구』, 제2집 (1994), pp. 192~193; 서연호, 이강렬, 『북한의 공연예술 I』(서울: 고려원, 1990), pp. 258~259.

30) 박영택, “90년대 미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찰”, 『미술세계』 (1991. 12), p.26.

은 리얼리즘 양식 및 이념과 거리가 먼, 특히 기하학적 경향의 것이었다. 반면 1970년대는 '미니멀 추상'(minimal abstraction)의 영향속에서 정착기의 두 추상양식이 극복되고 리얼리즘 경향이 퇴조하였다. 70년대 후반 이후 '포스트 미니멀'의 영향가운데서 서술적 경향의 미술이 붐을 조성하였다. 이에 비해 80년대는 '변혁과 갈등'의 시대였으며 이에 따라 미술계는 이른바 모더니즘 대 리얼리즘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참여하게 진행되어 왔다.³¹⁾ 반면 미술문화의 수용과정에서 서양미술의 무조건적 수용만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즉 해방 이후 창의성 결여, 이념부재, 현실적인 참여의지 빈약에서 벗어나려고 한 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1950년대 중, 후반기에 앵포르멜과 액션페인팅으로 요약되는 추상미술운동에 자극받은 추상화물결이 그 하나이며, 일부이기는 하나 1980년 중반의 수묵화운동,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싹트기 시작한 새로운 채색화운동이 그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미술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주체사실주의 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미술은 당성과 노동계급성, 인민성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여기서 당성은 사회주의 미술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선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식' 유희기법이 중요시되고 있다.³²⁾ 또한 실제 작품형태에서 나타나는 것은 주로 혁명적 낙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주체사실주의의 정향과 방법과 다른 미술사조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반면 이러한 북한 미술이 보여주는 긍정적 측면은 이기주의적 사적 세계의 산물이거나 대중과 유리된 고급상품으로서의 미술이 아니라는 점이다.³³⁾ 아울러 현실에 사상미학적 근거를 두면서 주체적 시각에 의해 민족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조선화는 독특한 형식과 내용을 수립하여 대중

31) 일제 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미술의 주요경향에 대한 논의의 대표 저작은 한국미술평론가협회편, 『현대미술의 전개와 비평』(서울: 미진사, 1993), pp.133~136; 오광수, "한국미술의 현장"(서울: 조선일보사, 1988), pp.60~61; 이영철, 문화변동과 미술의 대응, 『미술세계』(1992. 4), p. 29; 서성록, 『한국의 현대미술』(서울: 시공사, 1994), pp. 358~400 참조.

32) 김정일, 『미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1~22, 39, 98, 106.

33) 윤범모, "북한미술의 특징과 조선화의 세계", 『북한연구』, 제4권 2호(1993, 여름), pp. 64~65.

속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미술적 기량이 비교적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다.³⁴⁾ 북한미술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념조형물 제작 기법, 쪽무늬 벽화 기법, 검은 옥돌에 수작업으로 초상화를 새기는 특이한 기법 등으로써 이들은 북한 미술가들이 창출해 낸 것이다.³⁵⁾ 따라서 다양성을 기초로 서구적 미술양식과 한국 전통미술 양식의 조화를 지향해 온 남한의 미술과 북한의 독특한 미술기법의 묘합(妙合)을 위해 남북이 협력한다면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외국 미술계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3. 규범문화

북한 사회는 그 동안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면서 개인 생각과 행동을 집단에 귀속시키는 집단주의 사상을 고취시켜 왔다. 따라서 북한에서 개인주의적 인생관은 곧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지상의 목적으로 삼는 삶과 동의어로 타도 대상이었다. 이에 비해 그 동안 남한 사회는 상대적으로 개인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회체제는 개인의 자율적 성취와 자아실현이 증시되기 때문에 경쟁체제가 된다. 남북한 주민간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규범의 차이는 이상적 인간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은 공동체 삶에 요구되는 덕목인 협동·순종·겸손·이타·인내·절제·화목·충성과 같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 즉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인격적이고 자기 수양적인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간주했다. 한편 남한에서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은 자기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덕목인 개성·창의·합리·능률·자율·공정·책임·독립과 같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므로 뛰어난 사람, 즉 개성이 뚜렷하고 창의적이고 자기 실현을 중요시하는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양쪽 체제에서 추구하는 이와 같은 인간상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직한 자질만을 갖춘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³⁶⁾ 왜냐하면 한 체제에서 바람직한 자질이 다른 체제에서는 오히려 바

34) 정희섭, “북한미술의 이해를 위하여”, 『민족예술』(1996.4), pp. 40~41.

35) “통일을 대비한 21세기 한국미술의 전망,” <http://art.joongang.co.kr/199912/art140.html>.

람직하지 못한 자질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양 체제가 상이하게 빚어 낸 이상적 인간은 모두 강점과 동시에 약점도 갖고 있는 것이다. 양쪽 인간 중 어떤 인간상도 온전하게 이상적인 인간상은 아니다. 동시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고 버리기를 강요한다면 갈등은 확대된다. 따라서 남북이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도정에서 많은 만남과 다가서기를 통해 서로의 장단점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여 새로운 인간상을 점진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IV. ‘긍정적 다름’의 통일교육적 함의

1. 통일교육에서 문화적 접근의 의의

199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의 통일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교육은 기존의 냉전적 사고를 기초로 북한을 대결대상이나 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함께 살아야 할 민족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전제위에서 기존의 반공이나 안보의 문제를 포용하는 적극적 의미의 통일교육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통일교육은 50여년간 상이한 체제와 이념하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간의 내면적 또는 의식적 통합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내면적 의식적 통합에 대한 강조는 사회학적인 개념을 통해 볼 때, 체제통합은 어느 정도 합의에 의해 또는 일방의 흡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생활세계의 통합, 즉 문화통합은 단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기초한다. 이는 곧 통일교육 내용 구성에 있어 문화적 접근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통합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를 우리는 통일된 독일과 예멘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최근 홍콩 반환 후 나타

36) 이수원, “통일과 새 인간상 정립”, 문화방송 편, 『남북한 사회·문화·경제·정치적 통합과 방송』(서울: 문화방송, 1997), pp. 54~59 참조; 이와 같은 관점으로는 전병재, “사회의식구조 동질화 과제: 남북한 인성차이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동질화의 과제』(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주최 학술회의 주제발표 논문, 1994. 11. 25), pp. 29~31 참조.

나는 중국과 홍콩지역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갈등에 주목할 수 있으며, 비록 통일은 이루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과 대만간의 사회문화적 교류와 갈등³⁷⁾은 남북한 문화통합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제도적인 통일을 이룬 국가이든 제도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빈번하게 밀접한 교류를 이루고 있는 국가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양 지역 주민들간의 사고 방식과 생활방식,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통일의 기반이 문화이며, 동시에 통일교육에 있어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적 접근에 기초한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내용에서 정치적 대결의 논리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북한 의사소통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문화적 접근은 남북 양 사회에서의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일정하게 수용하게 하며,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나아가 서로의 차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평화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³⁸⁾ 나아가 문화적 접근은 남북한 사회의 분단 반세기 동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발전시켜 온 부문도 엄존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동질적 측면이 있음을 소개함으로써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아울러 과거에 남북한 사회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왔던 '전통적 측면에서의 동질성과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의 이질성'이라는 단순 도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추상적이고 거창한 내용을 통해 청소년들 자신과는 무관한 문제로서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화해협력할 수 있는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에 대한 소개를 통해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다.

37) Nathan, Andrew J., "Promoting Politico-Cultural Integration : Lessons for Korea from the Chinese Experience", 문화방송, 『정보화시대의 남북한 문화통합』(서울: 문화방송, 1998), pp. 200~201.

38) 임현진·정영철,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 : 현실과 과제", 『통일연구』, 제3권 제1호(1999), pp. 339~340 참조.

2. 『통일교육지침서』의 문제점

1) 총론적 차원의 문제점

1978년 서독의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 지침』³⁹⁾에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독일문제를 다룰 때 필수적인 동서독 현안 문제, 동독 사회 이해의 문제, 민족으로서의 일체감, 동질성 및 이질성 문제, 통일문제의 국제적 성격과 국내적 성격이라는 이중성, 양 사회의 비교와 가치판단의 문제,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지도 방법 등 그야말로 ‘지침’들이 담겨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통일교육지침서는 ‘지침서’라기보다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요약한 교과서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이해 및 통일문제 이해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본서의 접근은 지나치게 정치학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 및 통일문제를 이념이나 체제, 제도, 정책적 측면, 즉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적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생활세계를 일구어 가는 ‘사람’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흔히 이러한 체계통합적 접근을 취할 경우 주체사상이나 노동당 및 그 외곽 기구 등을 포함하는 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기술이나 정상 회담이나 남북교류상의 문건지상주의적 소개로 말미암아 남북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문제는 선언적 진술로 끝을 맺게되는 결과를 낳는다.

2) 북한 이해 부분의 비중과 내용

일반적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은 범주적으로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로 구분된다.⁴⁰⁾ 이렇게 볼 때, 이 지침서에서 제시되는 통일의 필요성에

39) KMK, Die deutsche Frage in Unterricht(Bonn, 1978) ; 한국교육개발원, 『독일의 교육통합』(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2); 오기성, “서독의 통일대비 정치교육: 「독일문제 교육지침」이 한국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교육』(2000, 봄호) 참조

40) 전자의 경우는 분단의 폐해와 통일의 필요성,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문

대한 내용의 구성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북한 이해” 부분(2개의 절 분량)이 약 20쪽을 차지하는 반면, 4~7절, 즉 “통일환경 변화”~“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42쪽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보면 이러한 비율은 극심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통일환경의 변화”~“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은 현재 4개의 절을 통해 장황하게 진술되고 있는 바, 구성비율의 문제도 있거니와 어떤 측면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홍보용으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다분히 보인다.

북한의 문화 부분은 이념이나 체제 문제보다 남한과 동질성이 많으며, 이질적이라고 해도 일정 정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역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통해 남북이 서로 화해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엄존하고, 따라서 이러한 화해와 협력을 통해 단순히 부분의 합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화해협력의 적극적 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이 특히 문화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문화 관련 내용에서 이러한 측면은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지침서에서는 북한의 문화정책에 대한 개략적 소개, 김정일의 역할, 문화의 선전선동적 역할, 최근 문학과 예술의 경향 등에 대한 간략한 내용만이 제시되어 있다.⁴¹⁾

3. 긍정적 다름의 통일교육적 함의

1) 민족화해의 단서로서 긍정적 다름

통일교육이라는 개념은 통일이전과 통일이후라는 시·공간적 조건에 따라 ‘민족화해교육’과 ‘민족통합교육’의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정립함으로써 보다 개념적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 여기서 ‘민족화해교육’은 남북한간의

제와 관련된 주변국의 정책, 교류와 협력을 포함하는 남북한의 통일노력 및 통일 정책 등이 포함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북한을 보는 시각, 북한의 제반 현상,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등이 포함된다.

41) 통일부, 앞의 책, pp. 26~27.

적대감과 대결감정을 해소하여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남북이 화해와 협력, 신뢰에 기초하여 인적, 물질 교류를 이루는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이룰 때까지의 범국민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민족통합교육'이란 제도적 및 영토적 통일, 즉 체계통합을 이룩한 이후 통일국가를 완성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갈등을 완화하고 화합하는데 요구되는 적절한 지식, 태도, 가치관, 의식, 사고, 행동규범 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습득케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두 형태의 개념을 설정할 수 있지만 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은 '민족화해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민족화해교육에서 중요시되는 범주는 상호공존을 통한 이문화(異文化) 이해교육이다. 민족화해교육은 우선 남북의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배타적 대결상태를 넘어 '상호 평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위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중시한다. 이해의 과정에서 파악되는 같음은 사람간의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다름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민족화해교육은 단순히 전통적인 동질성에 대한 확인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가 다름에도 협력할 경우 단순한 합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례를 발굴, 교육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족화해교육은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화해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나아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민족적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인 긍정적 다름에 대한 소개를 중시한다. 따라서 민족화해교육은 기존의 단순한 전통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소극적 민족공동체의식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 적극적인 민족공동체 의식을 지향한다.

2) 긍정적 다름의 반영 방안

2001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북한 이해부분인 2장 2절 북한사회의 모습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7절 4항

의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부분에서 반영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우선 현재의 “2.4 북한의 교육과 문화”에서 문화를 분리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먼저 북한이 문화를 독립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공간에서 북한의 문화를 소개할 경우 인지적 경험문화적 측면이나 북한 문화의 부정적 측면만을 소개할 것이 아니라 심미적 문화와 규범문화를 상징적 차원과 외현적 차원으로 구분, 설명하고 그 간극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을 지침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문화가 지닌 상대적 장점도 제시함으로써 화해협력의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단서 제공을 토대로 “7.4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현재의 남북교류협력의 실적, 건수, 통계중심의 나열을 벗어나서 그러한 교류협력 속에서 남북이 상호 냉전 및 적대의식이 완화되고, 서로의 문화를 보는 관점이 변화되게 되는 과정도 소개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내용에서 동질성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여려는 변화된 입장, 상호 협력할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의 증대 등을 다루어줌으로써 다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화해협력에 있어 중요한 긍정적 요소가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V. 결 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통일교육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통일교육에 있어 진정한 삶의 통합의 매개가 되는 문화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아울러 북한사회의 이질적 측면을 부각시켜 모든 원인을 북한에 전가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에 대한 논의는 자라날 수가 없었다.

본 논문에서 밝혀 본 바와 같이 남북한 문화는 분단 50여년이 지나면서 이질적 측면과 아울러 동질적 측면을 지녀왔다. 그러나 동질적 측면이 통합에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듯이 이질적 측면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합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질적이라고 해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그리고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측

면이 엄존하고 있다.⁴²⁾

1994년 북한핵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남북 공연예술 교류사례를 통해 볼 때, 남한의 예술이 전통 원형보존 계승 정책의 한편에는 서양식 예술이 예술의 주류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북한은 전통예술을 변형시키고 외래예술과 접합시켜 예술계의 주류 경향으로 정착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다.⁴³⁾

이렇게 볼 때 남한과 북한은 각기 다른 전통예술 계승관을 지니고 있는 셈이며,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성과는 다 일정한 공과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양측의 성과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한민족의 문화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료가 될 것이다.

물론 북한 문화에 있어 획일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며 우상숭배적 요소는 극복되어야 할 측면이다. 그러나 문화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민족적이고 공동체지향적 요소, 현대화의 노력과 그 산물 등의 요소는 발전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⁴⁴⁾ 또한 남한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이고 사대적인 요소, 비대중화적 전통성 등은 지양하되, 다원적이고 자유로운 요소는 수용되어야 한다.

발전적인 문화란 자국문화의 전통 속에서 다른 문화를 수용하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다원성을 추구하는 문화이다. 북한 문화의 주체성과 현대성, 남한문화의 다원성과 자유스러움이 서로의 만남과 다가서기를 증대함으로써 장단점의 변증법적 종합을 통해 문화접변을 이룬다면 화해협력에 현실적인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한민족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 문화의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우리는 이제 통일된 사회를 이끌어갈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통일교육에서 북한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발전적 문화의 시각에서 남북한 문화

42) 연구자의 지적 한계로 인해 서예, 영화(애니메이션), 음식(음료), 서예, 가극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밝혀 둔다.

43) 김춘미 외,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5), pp. 56~57.

44) 문화체육부, 『김정일의 문예관 연구』 (1996), p. 346.

의 이상과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이를 기초로 문화의 긍정적 다름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적극적인 소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남북의 화해협력과 통일이 주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소개를 통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제고에도 기여하리라고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 김경동. 『한국사회 변동론』. 서울: 나남, 1994.
- _____. 『현대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1997.
- 김복영. “80~90년대 한국미술의 다원화의 양상과 갈등구조,” 『대한민국 학술원 논문집』. 제34집 1995.
- 김응태. 『연극이란 무엇인가』. 서울: 현대미학사, 1997.
-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 (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8. 4. 20),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9.
- _____. 『무용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미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춘미 외.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5.
- 김학성. “통일문화 연구의 방향,”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문화연구(상)』.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남기심, 김하수. “북한의 문화어,” 고영근 편. 『북한의 말과 글』.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노동은. 『노동은의 음악상자』. 서울: 웅진출판사, 1996.
- 문화체육부. 『김정일의 문예관 연구』.
- 박상천외.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 박상훈, 리근영, 고신숙.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박영택. “90년대 미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찰,” 『미술세계』. 1991. 12.
- 박찬부. “한국 현대 복식 문화 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서성록.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과 실제의 양상,” 한국미술평론가협회편. 『현대한국미술의 새로운 이해』. 서울: 시공사, 1994.
- _____. 『한국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미진사, 1993.
- _____. 『한국의 현대미술』. 서울: 시공사, 1994.
- 서연호, 이강렬. 『북한의 공연예술 I』. 서울: 고려원, 1990.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도서 도덕·윤리 연구개발위원회 편. 『고등학교 윤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 송수남. 『한국화의 길』. 서울: 미진사, 1995.
- 양혜숙. “80년대 한국연극의 발전적 위상과 양상,” 『문학사상』. 제201호 1989. 7.
- 에베레트 트라이안스. “민족통일 : 그 문화적 측면”, 『통일정책』. 제4권 4호, 1978.
- 오광수. “80년대 한국미술의 정황,” 한국미술평론가협회편, 『현대미술의 전개와 비평』. 서울: 미진사, 1993.
- _____. 『한국미술의 현장』. 서울: 조선일보사, 1988.
- 오기성. “문화통합을 지향하는 통일교육 내용의 개선방안 연구,”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종합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서울: 통일원, 1998.
- _____. “북한의 규범문화연구,” 『국민윤리연구』. 제38호 1998. 4.
- _____. “서독의 통일대비 정치교육~ 『독일문제 교육지침』이 한국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교육』. 2000 봄호.
- _____. 『남북한문화통합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유민영. “해방 50년의 회곡,” 유중호 외, 『한국현대문학50년』. 서울: 민음사, 1997.
- 윤범모. “북한미술의 특징과 조선화의 세계,” 『북한연구』. 제4권 2호 1993 여름.
- 윤준근. “한국미술의 전환기인가,” 한국방송공사 TV심포지움 발표논문, 1988. 2.
- 이강렬. “북한연극 50년, 회고와 전망,” 『북한문화연구』. 제3집, 1995.
- 이광규. 『새로운 민족관의 수립을 위하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5.
- 이구열. 『근대한국화의 흐름』. 서울: 미진사, 1988.
- 이미원. 『포스트모던시대와 한국연극』. 서울: 현대미학사, 1996.
- 이병옥. “북한무용의 이념과 실제,” 『북한연구』. 제4권 2호 1993 여름.
- 이상섭. “국어교육의 개선방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국어의 순화와 교육』.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이선재. “북한주민의 복식에 관한 고찰,” 『북한문화연구』. 제1집 1993.

- 이수원. “통일과 새 인간상 정립,” 문화방송 편, 『남북한 사회·문화·경제·정치적 통합과 방송』. 서울: 문화방송, 1997.
- 이영철. “문화변동과 미술의 대응~창작과 비평의 비판적 소고~,” 『미술세계』. 1992. 4.
- 이영희. “남북한 정치사회상의 이질감과 극복,” 『남북한 이질감과 그 극복 전망』. 효성여대 현대사상연구소 주최 1993년 통일문제 교수 학술 세미나, 1993. 9. 23.
- 이은영. “의생활의 변화”, 이기영외, 『광복 후 가정생활의 변천』.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6.
- 이춘길 외. 『김정일의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 이현경, 최대석. “남북한 문화정책 및 교류현황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상)』.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임채욱. 『남북한 접촉과 문화변용』.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 임현진, 정영철.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 현실과 과제,” 『통일연구』. 제3권 제1호, 1999.
- 장경모. “남북한 언어 변동에 관한 연구,” 『통일원 '93 북한통일연구 논문집(VII)』. 북한의 경제사회문화 분야, 1993.
- 전병재. “사회의식구조 동질화 과제~남북한 인성차이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동질화의 과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주최 학술회의 주제발표 논문, 1994. 11. 25.
- 전영태. “민족적 대서사시 창출을 위한 준비작업,” 『문학사상』. 1992. 4.
- 정병호 외. 『북한의 공연예술II』. 서울: 고려원, 1991.
- 정홍익. “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 『문화예술논총』. 제5집 1993.
- 정희섭. “북한미술의 이해를 위하여,” 『민족예술』. 1996. 4.
- 조선일보사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월간조선 신년호 별책부록). 서울: 조선일보사, 1991.
- 주강현. 『북한의 우리식 문화』. 서울: 당대, 2000.
- 차인석. 『사회인식론~인식과 실천~』. 서울: 민음사, 1992.

- 통일부. 『2001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2001. “통일을 대비한 21세기 한국미술의 전망”; <http://art.joongang.co.kr/199912/art140html>.
- 한국비평문학회편. 『북한 가극, 연극 40년』. 서울: 신원문화사, 1990.
- 한국예술연구소.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구성안 연구』. 1995.
- 한옥근. “연극예술의 희곡문학,” 유중호외, 『한국현대문학50년』. 서울: 민음사, 1997.
- 현재원. “북한 혁명가극에 나타난 가요형식과 극적효과,” 『북한문화연구』. 제2집, 1994.
- Alexander, Jeffrey C. and Philip Smith. *“The Discovery of American Civil Society : A New Proposal for Cultural Studies,”* Theory and Agency, Vol.22, No.2, (1993)
- Baldrige, J. V., *Sociology*. N.Y.: Wiley, 1975.
- Hwa Yol Jung. *Rethinking Political Theory : Essay in Phenomenology and the Study of Politics*. Athens: Ohio Univ. Press, 1993.
- KMK. *Die deutsche Frage in Unterricht*. Bonn, 1978.
- Nathan, Andrew J. *“Promoting Politico~Cultural Integration : Lessons for Korea from the Chinese Experience”*, Paper for the International Seminar of *“Korean Unification and the Role of the Media”* sponsored by the Hankuk Foundation and Munhwa Broadcasting Company (Nov. 26, 1997)
- Tompson, J. B. *Ideology and Modern Culture*. Cambridge: Polity Press, 1990.
- Turner, J. H. *“Analytical Theorizing,”* Anthony Giddens and J. H. Turner, (eds.), *Social Theory Today*.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1987.
- Tyler, E. *Primitive Culture*. Gloucester, MA: Smith, 1924.
- Peterson, Richard A. *“Revitalizing the Culture Concept”*, *Annual Review of Society*. Vol.5 (1979)